금속노조통신 160호
■발행일 : 2017년 9월 1일(금) ■발행인 : 김상구 ■발행처 : 노조선전홍보실 ■스마트폰 m.ilabor.org / ■전화 : 02-2670-9507

금속노조 10기 임원선거 세 개 후보조 등록

남택규, 하상수, 김호규 위원장 후보조 등록…부위원장 후보 일반 여덟 명, 여성 두 명, 비정규 미등록

전국금속노동조합 10기 임원선거 후보등록 마감 결과, 위원장 후보조와 일반명부 부위원장, 여성명부 부위원장 후보들이 모두 경선으로 치열한 선거전을 벌인다.

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진수)는 8월 28일 17시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 세 개 후보조와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 여덟 명, 여성명부 부위원장 후보 두 명이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호1번 남택규(기아자동차지부 소하지회, 49)-강오수(현대자동차지부 울산, 57)-김성열(한국지엠지부 부평, 55) 후보조는 '재벌적폐 청산, 촛불혁명 완수, 현장에서부터 노동존중사회 건설'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남택규 위원장 후보는 기아차노조 18대 위원장과 금속노조 5기 수석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기호2번 하상수(기아자동차지부 소하지회, 55)-조성옥(전북지부 군산지역금속지회, 54)-강봉진(현대자동차지부 울산, 50) 후보조는 '금속노조,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라 - 생각도, 투쟁도, 조직도 처음부터'라는 구호를 들고 출마했다. 하상수 위원장 후보는 기아차노조 16대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금속노조 대의원이다.

기호3번 김호규(현대자동차지부 울산, 55)-신승민(한국지엠지부 부평, 44)-황우찬(포항지부 개별, 52) 후보조는 '준비된 전략, 소통하는 리더쉽, 도약하는 금속노조'라는 구호로 등록했다. 김호규 위원장 후보는 2002년 금속산업연맹 사무처장과 2009년 금속노조 부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여성명부 부위원장 후보에 두 명이 등록해 경선에 돌입한다.

김현미 후보(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54)는 기호 1번, 엄미야 후보(경기지부 경기금속지역지회, 43)가 기호 2번이다.

일반명부 부위원장 후보로 여덟 명이 등록해 경선을 벌인다.

기호 1번 이승열(현대자동차지부 판매위원회, 52), 2번 양기창(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 49), 3번 송명주(현대중공업지부, 60), 4번 정주교(한국지엠지부 부평, 51), 5번 엄강민(현대자동차지부 정비위원회, 48), 6번 차준녕(한국지엠지부 사무지회, 50), 7번 한성규(기아자동차지부 정비지회, 51), 8번 함재규(기아자동차지부 판매지회, 52) 후보가 등록했다.